

아주 넓은 공간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북적이던 이 공간이 순식간에 텅비었다.

너무나 소란스럽고 복잡해서 혼자 있을 공간을 찾아 헤매던 나는 이제 덩그러니 홀로 남아있다.

그러자 곧 거대한 허전함이 내 몸을 들쭉시키고 들어와 자꾸만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내뿜던 공기들이 사라지고 조금씩 한기가 느껴졌지만 그들의 흔적만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누군가의 입술 자국이 남아있는 술잔과 먹다 버린 비스킷,

누군가가 두고간 장갑 한쌍과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들이

이런 저런 쓰레기들과 어우러져 그들이 여기 있었음을 생생히 증명하고 있다.

공간 가운데 놓인 커다란 테이블이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제 자리를 잃고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이동해있었다.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이런 변화가 낯설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는데 모두 떠난 후에야 비로소

이 모든 변화를 온 몸으로 알알이 생생하게 체감하게 된 것이다.

나는 두려웠다.

모든 것이 원래 있던 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까. 나는 그때까지 이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미 너무 많이 와버린 것 같다.

다시 돌아가자니 이제까지 흘러보낸 시간들이 아쉽고 이대로 계속 걸어가자니 자신감이 바닥을 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너무 고독하다.

모두가 떠난 이곳에 난 왜 혼자 남아있을까?

언젠가 나 또한 그들처럼 이곳 저곳을 옮겨다니며 떠나는 것이 더 익숙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단 한 번도 지금의 나처럼 고독하게 홀로 남아있을 사람들을 걱정해보지 않았다.

떠나온 나는 또 다른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만이었다.

그곳엔 언제나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외롭지 않았다.

이내 헤어질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의 한껏 들뜬 분위기에 빠져 웃고 떠들어댈 뿐이었다.

하지만 무리가 떠난 뒤 그곳에 남은 누군가는

나처럼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며 그 지독한 고요함 앞에 몸서리쳤을 것이다.

차라리 처음부터 혼자였다면 좋았을지도 모르겠다고 부질없는 후회도 할 것이다.

얼마 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

이 공간이 또 한 번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진지한 눈빛과 그들의 따뜻한 온기로 가득차기까지는.

어쩐지 언제까지고 이렇게 혼자일 것 같아 겁이 났다.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다시금 예전처럼 그렇게 떠돌아다닐 용기도 나질 않았다.

마냥 솟아오르는 두려움 앞에 이토록 무기력하게 주저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언젠가 저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제발 초라해 보이지 않기를. 부디 아무 손이나 덩어리 잡아버리지 않길. 바보처럼 울고만있지 않길.

외로움에 익숙해진 어리석은 바보가 되어있지 않길..... 바란다.